

손보사 핵심 체력 '기본자본'... 배당·투자 여력 등 따져본다

내년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 손보사, K-ICS 권고치 웃돌지만 자본 내용·활용여력 등은 제각각 기본자본 50% 미달 시 시정조치

손해보험 대형사들의 지급여력(K-ICS) 비율은 모두 금융당국 권고치를 웃돌지만, 자본의 내용과 활용 여력을 뜯어보면 회사별 체력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2027년부터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보험사 건전성의 핵심은 총량인 K-ICS 보다 손실흡수력이 높은 기본자본을 얼마나 두텁게 쌓았는지, 그 자본으로 배당·자사주 소각·성장 투자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로 옮겨가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보험사 기본자본비율 기준을 50%로 설정하고, 규제 기준 미달 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현행 K-ICS가 보완자본을 총 요구자본의 50%까지 인정하고 있어 자본구조의 질을 충분히 보여주지



Chat GPT가 생성한 손해보험사 K-ICS 이미지.

못한다고 봤다. 실제 보험업권 자본증권 발행 규모는 2023년 3조2000억원에서 2024년 8조7000억원, 2025년 9조원으로 급증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삼성화재는 가장 여유가 큰 축에 속한다. 삼성화재의 2025년 말 K-ICS 비율은 262.9%, 기본자본비율은 170.7%다. 가용자본은 29조3000억원, 기본자본은 19조원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삼성화재는 오는 2028년 주주

환원율 50%와 보유 자사주 비중 축소 계획도 제시했다. K-ICS 총량이 높을 뿐 아니라 기본자본이 두텁기 때문에 주주환원 여력까지 확보한 구조라는 해석이다.

DB손해보험은 삼성화재와 결이 다르다. 2025년 말 경과조치 전 지급여력 비율은 218.22%였고, 공시상 지급여력 금액은 21조5522억원, 기본자본은 8조 6813억원, 지급여력기준금액은 9조 8764억원이다.

총량 자체는 높지만, 삼성화재 처럼 기본자본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유형 이라기보다 공시상 기본자본 절대규모와 요구자본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DB 손해보험은 기존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 K-ICS를 200~220% 구간에서 관리하고, 이 구간이 유지되면 2028년까지 주주환원율을 35%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현대해상은 회복형에 가깝다. 현대해상의 2025년 말 K-ICS 비율은 190.1%, 기본자본비율은 65.9%였다. 절대 수준만 놓고 보면 규제 기준 50%는 넘겼지만 삼성화재 처럼 넉넉한 단계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개선 속도는 분명하다. 현대해상은 듀레이션 갭(자산과 부채의 금리 민감도 차이)을 2024년 1분기 말 -3.2년에서 2025년 말 -0.7년으로 줄였다. 수익성과 자본력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주환원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방향도 내놨다. 건전성 우량사라기보다 자본 복원과 ALM(자산부채종합관리) 개선으로 체력을 끌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메리츠화재는 높은 K-ICS에도 기본자본 구조를 따로 봐야 한다. 메리츠화재의 2025년 잠정 K-ICS 비율은 237.4%다.

오종원 메리츠금융 최고리스크담당자(CRO)는 “기본자본 비율이 82% 수준이고 2027년 제도 개정사항 반영 시 92%까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총량은 높지만 삼성화재 처럼 기본자본이 압도적인 구조라고 보긴 어렵다. 제도 변화와 자본구조 조정을 함께 봐야 하는 셈이다.

금융당국의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 도입에 따라 앞으로 손보사 건전성 평가는 누가 K-ICS 200%를 넘겼느냐보다, 누가 기본자본 50%를 얼마나 넉넉하게 웃돌고 그 체력으로 주주환원과 성장 전략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충분한 기본자본을 보유하도록 하여 든든한 보험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보험사 해외점포 순익 2억弗... 24% 증가

금감원, 작년 영업실적 2년 연속 흑자 생보사, 신규편입 실적에 71% 상승

지난해 보험사의 해외점포 실적이 2년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해외점포 실적은 신규 편입된 해외점포의 실적에 힘입어 70.8%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을 기록했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1억9700만달러(약 2801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 1억5910만달러 흑

자에서 3790만달러(23.8%) 증가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개 보험사(생명보험 4곳, 손해보험 8곳)가 11개국에서 운영중인 해외점포는 총 46곳이다. 생보사 해외점포와 손보사 해외점포가 직전연도 대비 각각 한 곳 늘었다.

업권별로는 생보사의 해외점포 순이익이 신규 편입된 신규점포의 실적에 힘입어 1억97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4530만달러(70.8%) 늘었고, 손보사는 동남아시아 권역 내 자연재해 등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740만달러(7.8%) 감

소한 8770만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1억2160만달러 ▲미국 6640만달러 ▲유럽 900만달러 순이었다.

금감원은 “중동사태 등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및 기후변화에 따른 대재해 위험 확대 등 보험사 해외점포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 중인 점을 고려해, 보험사의 해외점포의 경영현황 및 재무건전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보험사에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지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신한은행, 스테이블코인 자금세탁 방지 나서

은행권 최초 '온체인 모니터링' 구축

신한은행은 블록체인의 KYT(Know Your Transaction) 솔루션 '트랜사이트(TranSight)'를 도입하고 은행권 최초로 '온체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고 7일 밝혔다.

'트랜사이트'는 블록체인상 거래 정보와 지급주소를 분석해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 신호를 점검하는 솔루션이다.

'온체인 모니터링'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된 거래 내역을 분석해 자금의 이동 경로와 지급 간 연관성을 점검한다. 기존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계좌와 고객 정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온체인 모니터링'은 블록체인 지급주소와 거래 흐름을 함께 살펴 디지털자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환치기 등 범죄 수익을 이전하

나 은닉하는 데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연동돼 결제·송금 등 금융서비스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한은행은 관련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온체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트랜사이트 도입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관련 지급주소의 위험도를 분석하고, 이를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 시스템과의 연동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서비스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이 준비할 수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역량을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접목해 디지털자산 분야에서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수도권 전세 2.2% 상승... 서울은 2.61% ↑

올해 전국 전세가격지수 1.56% ↑ 주간 상승세 서울 0.23%로 가팔라

올해 들어 전세가격이 전국적으로 들쭉이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연초 이후 넉 달 만에 전세가격이 2% 이상 뛰었고, 작년 하락세를 보였던 지방도 벌써 1% 가까이 올랐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 4월 기준 전국이 올해 들어 1.56% 상승했다. 작년 같은 기간(0.03%)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수도권 전세가 2.20%나 올랐다. 상승률은 서울 2.61%, 경기 2.14%다.

주간 단위로도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5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23% 올라 상승폭이 전주(0.20%)보다 0.03%포인트(p) 확대됐다. 문재인 정

부 당시인 2019년 12월 넷째주(0.23%)와 같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1월 셋째주(0.26%) 이후 10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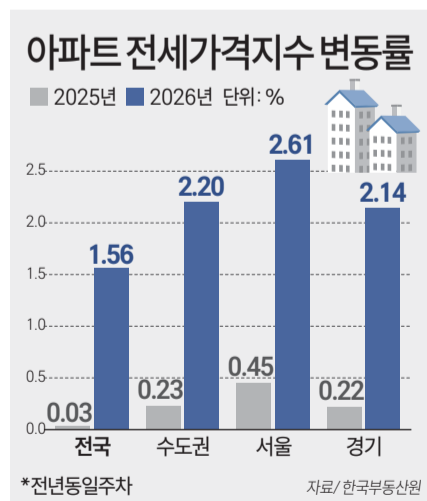
서울의 경우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부동산 정책이 실거주의무를 강화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임차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 중심으로 임차문의 증가하며 상승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세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아파트 매매가격도 다시 상승폭이 커졌다. 강남구를 제외한 전역이 일제히 올랐다.

5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5% 상승했다. 지난해 2월 첫째주 이후 65주 연속 상승세며, 전주(0.14%) 대비 상승폭도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국지적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지역과 대단지·역세권 위주로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이 혼재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성북구는 길음·하월곡동 대단지 위주로 0.27%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강북구(0.25%)는 미아·번동 위주로, 동대문구(0.24%)는 답십리·전농동 위주로 상승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0.04%)만 하락세를 나타냈다.

/안상미 기자 smahn1@

KB국민카드,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

KB국민카드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보호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내부통제 관련 기본 방침 수립 ▲금융소비자 보호 전략방향 및 세부 추진 계획 심의·의결 ▲금융소비자 호보 관련 사내 위원회 운영 결과 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반기 중 1회 이상 대면 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필요시에

는 수시로 회의를 열어 주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은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이하 모범관행)'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모범관행을 마련,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 인을 제시한 바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은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이자 선제적으로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